# 24시 편의점처럼 하늘향해 마음 열어두기

## (약5:1~20)

1.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2.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3.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13.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7.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24시 편의점처럼 하늘 향해 마음 열어두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24시 편의점이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중단 없이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왜 그렇게 열어둬야 되느냐?
우리가 엘리야처럼 행하고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본문 마지막 읽은 부분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다가 그가 기도하니 온 지면에 비가 내렸다, 우리도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살 수 있다, 믿음이 올바르다면.

이 엘리야의 기도를 얘기하기 전에, 오늘도 참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에 엘리야라는 단서가 붙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우리의 기분이 유쾌해질 수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이야기가 엘리야의 기도와 붙음으로써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버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라는 말이 없다고 그러면, 믿음의 기도라는 이 말은 '지금 구하오니 제가 구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근데 엘리야의 기도가 붙는 바람에 이 믿음의 기도가 영 딴 의미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엘리야의 기도를 열왕기상의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 곳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한 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저는 짜고 친 적은 없지만, 군대에서 사람 수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고스톱을 쳐본 적은 있는데, 하여간 고스톱 치면서 고참들에게 뒤통수 많이 맞았습니다, 너 짜고 치는 거 아니냐고…
그 다음 사람에게 몰아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제가 뭘 내야 좋을지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짜고 치는 것처럼 보여서 하여간 뒤통수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싫다는 걸 억지로 고스톱 치게 해놓고는 짜고 친다고.
엘리야의 기도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렇게 그냥 야고보 장로님이 써놓은 것만 보면,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오고,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안 그렇거든요.

왕상 17장 1절에 가보면 이세벨과 아합 왕이 완전히 선민 이스라엘의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았잖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선도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앞에 가서 가뭄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맹세라고 하는 뜻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거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시켜서 너한테 가뭄이 올 것을 예언하게 하고, 비가 올 것을 예언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곧바로 그 내막이 나와요.
아합 왕 앞에 가기 전에 엘리야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얼마든지 바르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동쪽 그릿 시냇가에 숨어있으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겠다'
그 다음에 그릿 시냇가에서 장소를 옮길 때, 17장 8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한 과부의 집에 머물라'
여기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가뭄이 이루어졌습니다.

왕상 18장 1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 삼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갈멜 산에서 송아지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누가 태우는지 시합을 하자고 해가지고, 이긴 다음에 바알 선지 450명과 아세라 선지 400명을 목 베서 죽이잖아요,
그 승리 끝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비가 오게끔 돼있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앞서서 갈멜 산에서 바알 선지나 아세라 선지들과 함께 대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하는 말씀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을 정도로 진땀을 빼면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면 뭡니까?
엘리야가 '아, 이제쯤이면 아합이 정신 좀 차렸겠나? 아합 정신 차리게 하려다가 북 왕국 이스라엘이 다 말라죽겠구먼! 그러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결재를 받아서 비 좀 오게 해야겠다!' 이래서 기도해서 비가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를 다 결정해놓으시고 엘리야한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얼마든지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자신의 능력 자신의 판단을 다 비우십니다.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의 뜻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의 계획이 알려져 이르시되… 이렇게 사신 거예요.
병자 하나를 고치셔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능력으로 고치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이 병자를 고치자!' 하고 말씀하셔서 고치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고보 장로님이, '병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경우 그 병자들이 기억할 것은, 교회 안의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기도를 받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기도의 내용, 믿음의 기도가 역사함이 크고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놓으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얘기하시는 이유는, 항상 교회 안에 속한 성도로서 병이 든 사람이건 장로님으로서 기도를 해야 할 사람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도록 마음을 하늘을 향해 열어두고 있으라 이겁니다.

열어두고 있을 때에 병이 난 경우라도 그 병이 낫게 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로님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장로님들은 지금의 목사님들을 말합니다.
장로님을 말하기도 하지만, 안수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장로님들이 지금은 목사님 아닙니까?
24시간 편의점이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고 있을 때에,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교인 중에 누가 아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인을 염두에 두시고 목사님에게 '아무개 집사님이 몹시 아픈 중에 있으니 가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임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못 받느냐 하면, '내가 목회를 부흥시키려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될 텐데'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하늘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이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소리치면서 기도한다든지 '병자를 낫게 하기 위한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아주 막혀버리고 맙니다.
하늘을 향해 열려있으려면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목회를 부흥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죽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을 향하기 때문에 하늘이 닫혀버리고 맙니다.

이게 참 묘한 역설이기도 해요.
이 세상에서 병 낫는 일을 위해서 내 마음이 죽어버릴 정도로 하늘로 마음이 열려있을 때에 옆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임해서 그에게 기도하게 하면서 병이 낫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하고 계시는 이유는, 하늘을 향하여 막힘이 없는 상태, 그래서 하늘이 마음대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믿음이라 이겁니다.
이 믿음이 온전히 작동해서 24시간 편의점처럼 하늘을 향해 열려있기만 하다면, 행함이 나타나게 되고 그 행함 중에 병자를 위한 기도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차 대전 아직 미디어가 잘 발달하지 않은 때, 저기 미국 시골의 켄터키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두 노부부가 스물네 시간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이 아들이 속한 부대가 참여하는데, 대체 어떻게 되었는가, 성공한 것인가 실패한 것인가? 아들이 죽지나 않았을까?
아들의 생사를 라디오로 들을 수는 없지만 아들이 참여하고 있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위해서 스물네 시간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게 하늘을 향해서 스물네 시간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한 것처럼 나한테 말씀이 임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서 바로 위의 12절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맹세라는 게 뭡니까?
내가 마음에서 다짐을 하면서 일이든 사건이든 뭔가에 대해서 내가 매듭을 짓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막히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연결되어있는 상태를 원하시는데, 항상 매듭과 결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지, 내가 결론과 매듭을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맹세를 해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맹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다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결론과 매듭은 하나님께서

내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서 지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늘이 막혀버리는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막히면 곤란하죠.
여러분,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비대증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요로의 양쪽에 전립선이라는 게 있는데 나이가 들면 점점 비대해지면서 요로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소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장로님이 한 방울도 소변을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얼굴이 새빨갛게 붓는 걸 봤어요, 신장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전립선이 요로를 막아서.
이렇게 하늘의 뜻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거나, 세상에서 내가 주체가 돼있거나, 세상에서 맛을 느끼거나 세상을 좋아하게 될 때, 마음에 살이 쪄버리고 비대증이 걸리면서 하늘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1절에서 하는 거예요.

또, 부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하여간 야고보 장로님은 부자한테 무슨 콤플렉스가 있으신지, 5장밖에 안 되는 이 야고보서 안에서 2장에서도 4장에서도 얘기하시고, 하여간 곳곳에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장에 보세요, '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리고 2장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라고 하고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자라고 다 그렇겠습니까?
또, 4장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돈 많이 벌고 싶어 하는 부자 되고 싶어 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경고합니다.
하여간 부자하고 못 사귀었어요.
아니, 부자가 뭐 다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돈을 착취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벌지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벌면 괜찮다, 더러운 부자가 되지 말고 깨끗한 부자가 되면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건 정말 난센스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 지금 야고보서가,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주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그 제대로 된 기독교의 믿음 안에서는, 부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뭡니까?
내 마음으로 돈이 많음을 느끼는 자가 부자입니다.
돈이 많음을 느낀다는 게 뭡니까?
돈이 많음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고 돈을 쓰면서 좋아하고, 돈 쓰는 맛을 알고 돈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기쁘고 돈 쓰는 재미를 아는 사람, 이게 부자에요, 부자.
근데 기독교의 믿음 안에서는 이런 부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안정감을 느낀다, 이건 돈을 믿는 거예요, 벌써 마음으로 간음하고 있는 겁니다.
돈 쓰면서 맛을 느끼고 재미를 느낀다, 이거 이미 마음에 살이 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이 찐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아요, 그런데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고 해요.

부자는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는데, 그 돈 한 푼 한 푼이 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될 돈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부자에게, 돈 많이 번 사장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가 오늘 번 돈은 여기다 써라, 저기다 써라' 다 하나님의 돈이고 부자는 돈 쓰는 맛을 느끼면서 살라고 부자로 만들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구 위에 있는 온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섭리를 위해서 물질의 흐름을 주관하실 때, 그 흐름에 참여시키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큰 파이프가 되는 것이지, 내가 돈을 크게 쓸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깨끗하게 벌면 된다, 그건 기본이고.
오늘 본문에는 물론 착취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야고보서 전체의 흐름상 얘기는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사건이 있은 뒤로는 나는 날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세지요, 세상 끝이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인생의 날들을 세상 끝 날로 규정해주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라도.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들이, 십자가사건이 일어난 뒤로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생각은 안 하고 세상에서 돈을 쌓는 데에 마음을 두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벌립니다, 그거는 아프리카에 굶어죽는 절대빈곤층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아요, 절대빈곤층을 향해 다 돌려보내야 돼요, 다.
여기서 월급을 3백만 원 받는데 4백만 원 받고 싶어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백만 원을 더 주는 일도 좋은 일이겠지만, 우선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면, 절대빈곤층은 나를 통해 벌게 되는 돈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나와 그들 사이의 사랑을 이루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돈을 아예 하늘에서 똑같이 분배해주셔서 똑같이 먹이실 수 있지만, 나에게 더 많이 벌게 하시고 절대빈곤층이 있게 만드신 이유는 내가 번 돈으로 그들이 먹도록 줌으로써 나와 그들 사이에 사랑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돈을 몰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처럼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방을 사라!' 하셔서 가방 사고 '차를 사라!' 하셔서 차 사는 것 이외에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고 싶은 것을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쓰면, 그 모든 돈들이 소리 지르며 우리를 고발하게 될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니 돈 많이 버는 것 안 좋은 거예요.
돈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못 쓰면 그 많이 번 돈, 금과 은이 다 녹이 슬어버리는 겁니다,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녹이 슬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새를 받지 못할 때 녹이 슬고, 그 녹들이 바로 우리를 증거하고 우리 살을 먹어버릴 거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게 뭐 좋습니까?
많이 벌어봐야 쓰는 데에 골치 아프기만 하지요.
그러니 많이 벌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꾸역꾸역 밀어주신다, 그건 그 사람이 돈 쓰는 은사를 받으신 거겠지요.
돈 쓰는 은사는 제일 안 좋은 은사일지도 모르지요.

거 왜 돈이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 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막는 힘이 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돈, 이 돈이 있어야 이 세상을 잘살고, 돈이 있어야 이 세상을 안정되게 살고,

돈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사는 재미가 있다.'
이게 완전히 하늘과 내 마음 사이를 막아버리고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게 하면서, 엘리야의 삶 엘리야의 기도와는 관계도 없는 삶을 살게끔 하는 일이 가장 강력하게 돈 때문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첫 장에 부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부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고보 장로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돈 쓰는 재미에 살지 말고 우리의 재미와 우리의 기쁨은 우리 마음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에 올라가 있으면서 하늘과 하나님으로 재미를 다 봐야지, 왜 돈으로 재미를 보려고 하느냐?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라' 하실 때 나가서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하고,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스물네 시간 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수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스물네 시간 기억하면 땅에 대해서 닫히고 하늘을 향해 열려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엘리야에게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것들을 하라 하셨다' '이러이러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다'
그 기도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의 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의 행함을 스물네 시간 마음을 하늘을 향해 열어둠으로써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 닫히게 하시고 하늘을 향해서만 스물 네 시간 열려있음으로써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행함과 기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